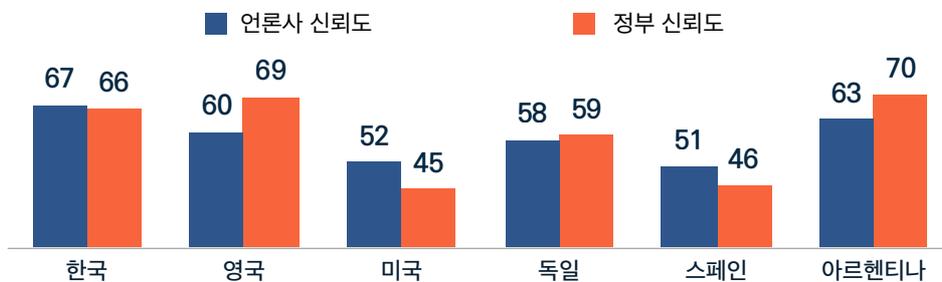


1

코로나19 관련 뉴스 출처, 6개국 중 한국인의 언론사 신뢰도 가장 높아!

-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 사용에 대해 6개국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인의 언론사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미국과 스페인의 언론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개국 중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음
- ※ Note : 본 조사 시점(3월 31일-4월 7일)은 유럽의 경우 일별 확진자 수가 3만 명 이상씩 발생하며 폭증하는 시기였고, 한국은 100여 명씩 발생하던 시기인 점을 유의할 것

[그림] 코로나19 관련 뉴스 출처 '신뢰한다' 비율 (6개국 비교)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Navigating the 'infodemic': How People in Six Countries Access and Rate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2020.04.15.(6개국 한국 1,009명, 영국 2,216명, 미국 1,273명, 독일 2,003명, 스페인 1,018명, 아르헨티나 1,003명, 총 8522명, 온라인 조사, 2020.03.31.-04.07)

● 한국인, 6개국 국민 중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쇼핑하며 가장 활발하게 일함

- 각국에서 국민들이 일상 행동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한국은 '온라인 쇼핑' 38%, '일하러 갔다' 35%,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21%, '배달 음식 주문' 21%로 6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상 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온라인과 배달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임

[표] 일상 행동 수행 비율 (%)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집에서 일했다	39	29	26	22	33	52
운동 또는 산책을 했다	33	51	33	35	21	13
온라인 쇼핑을 했다	38	18	23	20	17	16
쇼핑을 다녔다	9	17	15	43	13	27
일하러 갔다	35	11	20	19	11	8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21	2	11	5	4	16
대중 교통을 이용했다	21	1	3	6	2	3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Navigating the 'infodemic': How People in Six Countries Access and Rate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2020.04.15.(6개국 한국 1,009명, 영국 2,216명, 미국 1,273명, 독일 2,003명, 스페인 1,018명, 아르헨티나 1,003명, 총 8522명, 온라인 조사, 2020.03.31.-04.07)